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8(土)	29(日)
	
구름 조금 2/13℃	구름 많음 2/14℃

News

- 건설·조선 2차 구조조정 ②
- 휴대전화 후적 신청 급증 ③
- 김연아·아사다 피겨대전 ⑭

Entertainment

- 오영실의 맛깔난 연기 ⑦



- 미녀들의 수상한 변신 ⑩

Wellbeing

- 황사를 이기는 음식들 ⑤

Books

- 詩로 피어난 심진강의 봄 ⑧
- 몸의 신비한 비밀 '바디북' ⑨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전남 고위공직자 63% 재산 늘었다

박근혜 광주시장의 재산이 지난 1년간 1천 230여만원이 늘어나는 등 광주·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345명 가운데 218명(63.1%)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가운데서도 5명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15명(75%)은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었다. <표 2면>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들의 2009년도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결과 박 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24억4천892만5천원에서 올해 24억6천129만원으로 1천236만5천원이 증가하는 등 광주지역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26명 가운데 17명(65.4%)의 재산이 증가했다.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서는 전갑길 광산구청장이 5억7천739만9천원으로, 지난 1년 사이 1억7천349만1천원이 증가하는 등 5개 구청장 가운데 서구청장을 제외한 4개 구청장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명의 광주시의원 중에서는 나종천 의원의 재산이 1억7천239만원 늘어나는 등 전체 의원의 61%인 11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전남에서는 박준영 지사가 14억820만원으로 전년보다 3천621만원이 감소했지만, 이번

재산등록 대상자 319명 가운데 63%인 201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22명의 시장·군수 가운데서는 박연수 진도군수가 6억6천185만원의 재산을 신고, 1년 동안 2억7천333만원이 증가하는 등 15명의 시장·군수가 재산을 불렀다. 또 도의원 가운데서는 김철주 의원의 재산이 7억1천399만8천원 늘어나는 등 50명의 의원 중 76%인 38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중에서는 5명의 재산이 감소한 반면 15명은 재산이 늘었다.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최인기 의원은 오래 전에 투자했던 벤처기업 셀트리온의 주식가치가 오르면서 19억 4천933만원이나 늘었다. 반면 김효석 의원은 투자했던 금융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14억1천603만원이 줄어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은 재산 감소를 기록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총 재산은 356억9천182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억4천390만5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로 이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예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총정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박진 의원 전격 소환

‘박연차 리스트’ 수사...민주 이광재 의원 구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7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내에서 박 회장으로 부터 탈러화로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사전 소환 통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50분께 출석했다.

박 의원은 박 회장 측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박 회장과 만난 사실까지는 인정하지만 강연료 명목 등의 금품수수 혐의는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2002년 ‘정치 1번지’인 서울 중

로구 보결선거에 나선 뒤 16~18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3선의 여당 중진 의원으로,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대해 추가 소환 또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소환에 불응했던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이날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서 의원이 난색을 표명해 출두 일정을 협의 중이며 다른 현역 의원 1~2명을 29일 조사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2004~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국내와 미국, 베트남에서 미화 12만달러(1억 6천만원) 등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의원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도심 봄꽃 박람회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09 광주 봄꽃 박람회'가 개막된 가운데 꽃에 피운 어린이들의 동심도 활짝 피어났다. 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이어진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완도주민 전국서 스트레스 가장 적다

고흥군 흡연율 30% 가장 낮아 광주 음주율 전국평균 웃돌아

완도주민들이 전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느끼고 있으며, 고흥주민들은 전국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평생 음주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비교적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가 27일 공개한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보건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조사는 지난해 9~11월 전국 251개 기초자치단체급 지역에서 성인 22만 명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역별 표본 숫자는 700~817명, 표본오차 범위는 평균 ±3%포인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완도군이 9.7%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경남 합천군과 서울 동대문구는 각각 43.3%와 42.4%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남성 흡연율(평생 5갑 이상 담배를 피웠고 현재도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고흥군이 30.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60.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강원도 화천군에 비해 무려 2배의 격차가 났다.

광주시민의 경우 평생 음주율이 79.9%로 전국 평균(76.1%)을 웃도는 등 비교적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위험 음주율도 46.1%로 전국 평균(45.8%)을 웃돌았다.

고위험 음주율이란 한 번에 소주 7잔 이상을 마시는 술자리가 한 달에 한 차례 이상을 넘는 남성과 여성(5잔 이상)의 비율을 뜻한다.

질병별로는 고혈압 환자가 인구 1천명당 139명으로 가장 높았고, 골관절염(75.6명), 고지혈증(50.2명), 당뇨병(48.4명) 순이었다.

전반적 분포를 보면 흡연율과 음주율은 강원도와 영남 지역의 시·군·구들이 대체로 호남과 충청지역보다 높아 우리 국토의 지형처럼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태를 보였다.

비만율은 서울과 경기, 강원도 등 북부 지방이 호남권과 영남권 등 남부 지방보다 높은 양상을 나타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은 분석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처음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THE NATION WITH DISCOVERY BRAND
세상과 함께 부른 나의 노래 50년
傳說

2009년 4월 25일(토) 오후 3시, 6시
KBS2 방송

전남과학대학